

영화 **살인자의 기억법** 설경구

“캐릭터 얼굴에 관심... 기름기 짝 뺐다”



“배우 인생의 터닝포인트 된 영화”

원작 소설에 결말·캐릭터 변화 줘

은품으로 보여준 ‘설경구 연기법’

영화 ‘살인자의 기억법’에서 설경구(49)는 비쩍 말라 있다. 얼굴도 마른 장작처럼 푸석푸석하다. 알츠하이머에 걸린 은퇴한 연쇄살인범 병수 역할을 위해 체중을 감량한 탓이다. 굳이 노인 분장이 필요 없을 정도로 얼굴과 목, 손등까지 주글주글한 주름이 생겼다.

30일 서울 삼정동의 한 카페에서 만난 그는 “병수가 어떤 얼굴을 지녔을까 고민하다 기름기를 짝 빼고 건조한 얼굴을 가보자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평소 80kg 가까이 나가던 몸무게를 웨이트 트레이닝도 없이 68kg까지 빼었다고 한다.

그는 과거 ‘역도산’ 때는 5개월 만에 28kg을 쪼여 100kg 가까이 늘었다가, ‘공공의 적’의 검사 역할을 위해 한 달 만에 70kg대로 살을 빼는 등 작품마다 고무줄처럼 체중을 조절해왔다. 설경구는 “살 빼는 요령이 생겼다”면서 “살 빼지는 것을 보면 희열이 느껴진다”며 웃었다.

“살인자의 기억법”은 설경구의 배우 인생에 터닝포인트가 된 영화다. 연기에 대한 매너리즘에 빠졌을 때 이 작품을 만났다고 했다.

“과거 몇 년 동안은 계속 해왔던 대로만 연기했던 것 같아요. 작품에 들어가기 전에 ‘이번에는 살을 쪼여? 아니면 빼?’ 이런 식으로 단순하게 접근했죠. 하지만 이 영화는 달랐습니다. 그동안 한 번도 해보지 않은 캐릭터였고, 병수가 어떤 얼굴을 하고 있을지 너무 궁금했죠. 그러다 보니 많은 고민을 하게 됐습니다.”

치열한 고민의 결과는 작품에도 그대로 반영돼 그의 필모그래피에 한 획을 그을 만한 흔흔의 연기를 보여준다.

극 중 병수는 ‘세상의 나쁜 것들을 청소하는’ 연쇄살인범이었다가 어느 날 살인을 멈춘 인물. 17년 동안 동물병원 원장으로 본능을 감추며 살아간다. 알츠하이머 판정을 받는다. 그런

그의 주변에 살인자의 기운을 지닌 태주(김남길)가 나타나고, 하나뿐인 딸을 태주로부터 지키기 위해 사투를 벌인다. 영화는 병수의 상상과 망상, 과거와 현실을 오가며 전개된다.

설경구는 “알츠하이머에 걸린 연기는 간접 경험을 할 수 없어서 과거 TV에서 본 다큐멘터리 등을 떠올리며 연기했다”고 말했다. 이 영화는 작가 김영하가 쓴 동명의 베스트셀러가 원작이다. 원작의 기본 뼈대는 가져오되, 결말과 캐릭터 등에 변화를 줬다.

“원작을 단순히 읽었다”는 설경구는 “영화 속 병수와 태주의 대결 구도, 액션 장면 등은 원작과 다르다. 태주의 살인에도 동기가 부여되었다”면서 “영화는 재창작 작업이기에 소설과 영화를 보는 맛은 다를 것”이라고 말했다. 또 “이 영화는 기억과 시간, 삶과 죽음, 그리고 개개인이 갖고 있는 악마성에 대한 이야기인 것 같다”고 소개했다.

데뷔 25년 차인 설경구는 영화 ‘박하사탕’(1999), ‘오아시스’(2002)를 비롯해 2000년대 ‘공공의 적’ 시리즈로 전성기를 누렸지만, 최근 몇 년간 출연한 작품들이 모두 흥행에 실패하며 힘든 시간을 보내기도 했다.

그러나 올해 칸영화제 초청작인 ‘불한당 : 나쁜 놈들의 세상’과 ‘살인자의 기억법’을 연달아 선보이며 ‘불한당’에서의 연기로 큰 팬덤을 얻으며 제2의 인기 전성기를 누리고 있는 설경구는 “지천명의 아이들”로 불리며 사랑받고 있고 열혈팬층인 ‘불한당원’들도 생겨났다.

그는 “망가졌던 팬카페가 다시 살아났다”고 말하며 수줍게 웃은 뒤 “(팬카페에) 글 올리면 서로 ‘나에게 무슨 일이 벌어진 거야’, ‘불한당’이 나에게 무슨 짓을 한거야’ 생각한다. 너무 감사하고 아직도 헛갈린다”고 답했다.

설경구는 ‘불한당’을 찍으면서 “(변성현 감독과 임시완 등) 젊은 친구들에게서 치열함을 배웠고, 그들이 저를 긴장시켰다”면서 “앞으로 더 달라질 것 같다”고 말했다.

설경구는 최근 김지훈 감독의 신작 ‘니 부모 얼굴이 보고 싶다’의 촬영을 끝냈고, 한석규와 함께 출연하는 영화 ‘우상’(이수진 감독) 촬영을 앞두고 있다. /연합뉴스

“풍류로 느끼는 가을 국악에 빠져요”

광주국악방송 ‘남도마실’ ‘무돌길 산책’ 공개방송



광주국악방송에서는 가을의 시작을 알리는 9월, 두 차례 공개방송을 진행한다.

소소한 우리 이웃의 행복을 전해주는 주홍의 ‘무돌길 산책’(월~일, 오후 6시)과 지난 5월 광주국악방송의 봄 개편을 통해 첫 선을 보인 흥겹고 정겨운 지정남의 ‘남도마실’(월~토, 오전 9시)에서 마련한 공개방송이다.

먼저, 9월 2일 토요일 오후 7시 30분, 광주 대인예술시장 야시장 별장 야외 무대에서 열리는 ‘남도마실’의 공개방송 ‘풍류로 떠나는 가을마실’ 1부에서는 정음시립국악단 김찬미 소리꾼이 ‘가을을 부르는 남도민요’라는 주제로 ‘풍년가, 강강술래’ 등 가을과 어울리는 남도민요를 선보인다.

2부에서는 이 시대의 소리꾼 윤진철 명창이 ‘가을을 담은 판소리’를 주제로 판소리 심청가 중 ‘추월만정’과 ‘방아타령’ 등 판소리를 담긴 깊이 있는 해설과 소리를 들려준다.

이 외에도 대인시장에서 상점을 운영 중인 분들이 출연하여 전통시장에서 추석을 알차게 준비할 수 있는 방법 등을 전해준다.

9월 16일 토요일 오후 2시 광주 월봉서원에서 열리는 ‘무돌길 산책’의 공개방송에서는 호남의 선비 정신을 살펴보고 그들의 풍류를 함께 들여다보는 시간이 마련된다.

공개방송이 열리는 월봉서원은 고훈 기대승 선생의 학문과 덕행을 기리기 위해 설립한 서원이며 고훈 선생은 퇴계 이황과 12년 동안 서한을 주고받으면서 8년 동안 편지로 사단정정을 논했으며 조선 유학 사상에 지대한 영향을 준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400여 년 전, 고훈 선생의 철학을 담아 세워진 월봉서원에서는 호남 선비문화에 대해 이항준 철학박사를 통해 알아보고 가을풍류와 어울리는 우리 음악을 감상할 수 있는 시간이 될 것이다. 생황 연주자 김효영과 가객 김나리 등이 출연해 고즈넉한 우리의 풍류를 선사할 예정이다.

2회의 공개방송은 무료로 진행되며 선착순으로 자리가 제공된다. 광주국악방송은 광주 FM99.3MHz를 비롯해 전주 FM 95.3MHz, 진도·목포94.7MHz, 남원 95.9MHz에서 들을 수 있으며 PC와 모바일에서도 국악방송 애플리케이션 ‘딩더군 플레이어’를 내려받아 청취할 수 있다. 문의 062-602-9310. /전문재기자 ej6621@kwangju.co.kr

TV 프로그램 31일 ★이 프로그램은 방송사 사정에 따라 바뀔 수 있습니다.

Table with 4 columns: Channel (KBS1, KBS2, MBC, KBC/SBS), Time, Program Name, and Description. Lists various news, entertainment, and educational programs.

Table with 4 columns: Time, Program Name, and Description. Lists programs on EBS1 channel, including science, history, and nature documentaries.

知天命이 보는 오늘의 운세 (Fortune Telling for Today). A section providing daily horoscopes for the zodiac signs (子, 丑, 寅, 卯, 辰, 巳) based on the date August 31st (庚寅). Each sign has a corresponding icon and a short paragraph of advice.